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發行 崔 主 鎬
編輯 金 相 文
印刷 金 相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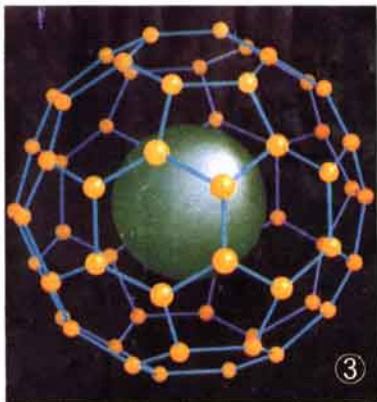
發 行 所
서울대학교 同窓會

서울特別市江南區 瑞草洞182
電話·直通 (556) 2444
(462) 7552

● 銀行지로番號 : 7500875
●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非 賣 品

서울대인이 빛내는 韓國 科學技術



衛星개발참여·「홀러렌」量産 成功 科學技術에 대한 國民의 公感대가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同門들이 人工衛星 개발에 대거 참여하고 꿈의 新素材인 「홀러렌」을 量産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사진 ① 95년 무궁화 위성을 쏘아올릴 로켓 ② 통신 위성 무궁화호 ③ 홀러렌의 탄소원자 배열모양 ④ 플라스마 장치를 이용해 홀러렌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모습 (관련기사 7면)

冠岳春秋

오늘을 가리켜 흔히들 하이테크霸權 시대·테크노 헤게모니時代라 일컫는다. 나라의 興隆과 위세가 무력에서經濟, 政制에서 科學技術로 이행된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 실상을 절프戰의 肉에서 목격하였다. 또 그 추세를 2000년의 과학기술테마「宇宙세기의 出帆」에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91년 현재 우주에선 이미 1천7백 개의 民軍用 衛星이 活躍중인 위성시대를 가동시키고 있다. 그 상황은 보다 더 數量化· 첨단화· 다양화해 질 게 분명하다. 이처럼 制動力을 잃 다시피한 科學技術의 혁명적 발전이 21세기의 地球를 어떻게 변 모시킬는지 또 어떠한 驚異와 新 奇를 인류앞에 創出해줄지, 期待도 크고 의문도 깊은 게 사실이다. 아마도 人間의 삶과 첨단과학 기술이 公극점에서 만나는 새 세기를 이루게 될 것만 같다.

太陽전지에너지의 實用化· 연료전지발전· 水素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核융합발전 같은 새 에너지기술이 개발되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砂漠의 綠化· 大海峽의 變, 山嶺지하의 都心건설등이 실현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발전의 따른 生命조작, 차고 다닐 수 있는 人工心臓등이 등장하고 人의 生存을 위협하는 地球村의 溫室化현상 극복과 제도풀릴 것이라고 한다.

情報통신의 주역이 되는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 완성되어 가정에서도 움직이는 畫像을 보는 TV전화 가 나타나고, 전화팩스등 각종 뉴미디어를 찾아 동시사용할 수 있는 새 통신이 팔리게 된다. 知能로봇이나 龍역기가 달린 핸디폰(HANDY PHONE)이 출현하고 무궁해 電氣자동차와 磁氣浮上열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달리게 될 날 또한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核무기같은 恐怖의 대상이 없지는 않지만, 그 보다는 이차원 은 인류의 幸福과 文明을 人工의 手로 만들어내는 현대과학기술 앞에 더욱 高貴한 評價를 부여해 두고 싶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斷面 즉 先進國들이 철저한 自國기술의 보호와 新技術의 계속적인 개발로 後發國의 추격을 억제

하이테크 時代로 가는 길

하고, 그 추종개발마저 원천적으로 弱화시키려 드는 冷酷한 현실을 우리는 절코의면해선 안될 것이다. 이런 冷氣流의 빙장을 풀어헤치며 技術自立의 튼튼한 바탕을 구축해야 할 우리 과학기술의 現位置와 水準은? 91년판白書과 과학기술(발)에 따르면 「아직은 멀었다는 결론이다. 소프트웨어 정보·금속·파인세라믹스 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에너지 항공우주 등 모든 공학분야에서 기초수준과 기술이 전가공조립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落後상태라는 것이다.

核心첨단기술의 이後進性·교착상태를 박차고 기술下請基地의 신세를 속히 벗어나야 할 方略과 處方처럼 이 제우리에게 더 緊需한 21세기의 前夜과제는 없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당국이 HDTV (차세대 高鮮明TV)나 전기자동차 등 14개의 핵심과제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첨단과학기술개발「G7프로젝트」를 세워 금년 5월부터 시동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이다.

아울러 國民의 꿈과 자존심을 울추추에 떨치려한 韓國總人工 衛星발사계획이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실 또한 倍한 감동을 금치 못하게 한다. 비록 소형이지만 科學院이 추진해온 과학실험용 위성 키트(KITS AT)-A호는 잘하면 이번 여름 7·8월경에 太極旗를 앞세우고 우주여행을 떠난다.

한국통신(KT) 위성사업단이 담당한 衛星용 통신방송 위성 「무궁화호」의 발사계획 또한 매우 순조로와 이미 위성제작과 발사대 일까지 끝낸 상태다. 예정대로 95년 4월에 발사되면 발사대로 5천년 史上 初有의 본격적인 우주산업진출·위성사업전개의 도약을 마련하고 次世代 技術自立 및 固有기술개발의 始源의 轉換을 이루게 될 것이다. 비단 이 衛星사업뿐 아니라 꿈의 新素材라는 「홀러렌」量産法의 개발명사에게서 보듯 이 나라 科學技術의 그 앞마리를 이끄는 頭腦의 前衛 精勤하는 열리트와 主役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 서울대의 先學과 후학들이다. 激勵의 杖발을 그 앞에 높이 휘날려줘야 하겠다. 또 밑줄같은 支援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同窓會의 「1백인科硏基金」 조성 결의는 이런 뜻에서 역사적인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다.

"技術개발에 우리 同門이 앞장서자"

— 모교 發展과 科技振興모임 —

우수頭腦모인 母校 집중育成 강조

百億科學研究基金 조성 협조 다짐

각계 有力동문 40여명 참석

同窓會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별무에서 母校 발전과 同창회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崔主鎬회장, 金鍾泌총장, 金泳三민자당대표 등이 참석했다.



◇ 科技진흥 모임을 갖기전 잠시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집합회에서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1백억 科學技術教育振興基金 조성을 위해서 同門의 協力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崔主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경제전진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껏 살아온 생활이 허물어진다는 위기감을 정부와 동문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이 이 나라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政界·學界·企業界의 協力을 동문들이 합심하여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祝辭에 나선 金泳三(民自)은, 서울大學校출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긍지로 여기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동문 여러분이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사회 진출로 집권與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同門의 協力을 당부했다.

모교 발전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전적으로의 견해를 같이 했으며, 鄭宗澤 상임부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정부대표들 문으로 小委員會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金鍾泌총장은, 20만 서울大學人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며, 건배를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회호속에 모교발전 기원하는 전배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과학기술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며, 우리 서울大學人이 앞장서 그 불을 당기자고 다짐하면서, 1백억 과학기술교육진흥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崔主鎬회장 재선임

監事는 李琰瓊동문

冠岳골프親睦會

冠岳골프친목회(회장 崔主鎬)는 지난 5월 27일 뉴코리아 C·C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崔主鎬회장을 재선임하는 한편 감사에는 李琰瓊(국회재해상보험會長)을 새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난해 결정을 승인하고 徐廷和(동창회부회장), 金璟東(동창회부회장), 朴展容(동창회부회장), 李春根(지대동창회장) 등 4명의 임원진으로 승인했다.

이어서 會則을 개정, 新入회원의 입회비를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제41회 대회에서는 徐廷和동문이 우승을, 金鍾泌동문이 메달리스트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주우승=金泰天 △3위=鄭宗澤 △4위=高在淸 △5위=尹相澈 △행운상=金璟東 △감부상=沈鍾燮

이어서 金鍾泌총장은, '모교는 근래 최고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화교분위기를 전하며, '대학원생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10여년째

해오고 있으나 여려가지 이유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7년전 이진한 冠岳골프스의 과밀화로 인해 모든 학과의 발전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정부와 동문들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祝辭에 나선 金泳三(民自)은, 서울大學校출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긍지로 여기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동문 여러분이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사회 진출로 집권與黨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同門의 協力을 당부했다.

모교 발전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전적으로의 견해를 같이 했으며, 鄭宗澤 상임부회장은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정부대표들 문으로 小委員會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 金鍾泌총장은, 20만 서울大學人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며, 건배를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회호속에 모교발전 기원하는 전배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과학기술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며, 우리 서울大學人이 앞장서 그 불을 당기자고 다짐하면서, 1백억 과학기술교육진흥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과학기술개발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며, 우리 서울大學人이 앞장서 그 불을 당기자고 다짐하면서, 1백억 과학기술교육진흥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후보추천 8월31일까지

모교에서는 제2회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을 선정기 위해 후보추천을 받고 있다. 개교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의 후보는 모교에서 학위를 취득했거나 장기간 봉직

한 교수로서 가급적 60세 이상인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모교를 빛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회인 작년에는 국악발전에 공헌한 李惠求모교 명예교수(국악)와 여권신장에 기여한 李允榮동문(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개교기념식에서 수상, 가장 의미있는 행사로 평가됐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후보를 추천하려면 개인, 단체 관계없이 오는 8월31일까지 후보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모교 기획실(880-5081~4)로 우송 또는 전화로 통보하면 된다.

교에서 열린 환경조경학과 동문회의 흠키밍데이 행사에서는 **崔寬泳(83년卒)**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장(동문을 사회장으로 추대)을 소개했다.

교에서 열린 환경조경학과 동문회의 홈커밍데이행사에서인 **崔寬泳** 83년卒
· 일전종합건축사무소장(동문)을 사회장으로 추대했다.

“동창회 活性化에 최선 다할터”



工科大学
李達雨회장
(53년卒·한국코트렐)

지난 5월10일 열린工大同窓會 정기총회에 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된 李達雨(53년 전기 공학과卒·한국코트렐 <주> 대표이사) 동문은 「동문들의 결속력 강화와 친목도모에 중점을 두어 공대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교 工學碩士(57년) 출신으로 방송·배전부문의 전기기술사이기도

한 李회장은 52년 韓國電力의 전신인 朝鮮電業에서의 근무를 시작으로 40여년을 전기 분야에 몸담아온 베테랑 엔지니어다.

그동안 電氣工學科 동문회장,工大同窓會부회장으로 폭넓은 활약을 한것이 인정돼 이번에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임되는 영광을 안았다.

非 교육계 출신으로 첫 會長



師範大學
趙鏞樂회장
(56년卒·辯護士)

56년 教育行政科를 졸업하면서 8회 高試司法科에 합격, 30여년간 검사생활을 하다 서울地檢 남부지청장을 마치고 84년 변호사가업을 한 趙동문은 4대째 師大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남달리 동창회에 애정을 쏟아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7회에 회장직을 맡겨준 선배님들의 뜻이 깊은 추진력으로 동창

회를 새롭게 발전 시키라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임기동안 각학과 동문회장들을 수시로 접촉, 보다 활성화된 동창회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신임 趙회장은 서울시·건설부법률자문을 역임했으며, 부인 宋재국 여사와의 사이에 1男3女가 있는데 3女 惠淑(84년 師大卒)양도 서울대인이다.

建設部서 잔뼈 굵은 정통 관료



環境大學院
柳元圭회장
(75년卒·建設部道路局長)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어 「리오 지구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환경전문가를 동문으로 하는 동창회의 회장직을 맡게돼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신임柳회장은 62년 工大를 졸업하고 建設部에 투신, 도시계획과장 기술개발관 도시국장을 거쳐 현재의 도로국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을 건설부에만 몸담아온 정통 관료.

75년 環境大學院을 졸업한 柳회장은 임기 동안에 「선후배간의 교류활동을 하면서 동문회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을 쌓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힌다. 동문인 金滿子(64년 師大卒)여사와의 사이에 2남매를 두고 있다.

모교출신으로서 최초로 집권 與黨의 대동령후보로 선출된 金동문은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겠다」고 힘주어 말한뒤 「大選에서 반드시 승리할

金泳三동문(51년 文理大卒·民自黨대표 최고위원)이 지난 5월19일 열린 民自黨 전당대회에서 제14대 대동령후보로 선출됐다.



◇ 金泳三동문

집권黨 候補로 첫 次

수 있도록 20만 서울대인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지난 5월25일 모교발 전과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동문모임에서 이같이 밝힌 金동문은 이어 「제가 앞으로 나라를 책임지게 되면 써부린 사람이 수확하는 정의사회를 만들어

호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師大 公選會 재결성

수년간 중단되었던 師大同門 公選모임이 재결성되었다.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는 지난 5월3일 10시 모교병원 테니스코트에서 제14회 회원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姜회장의 개회사 金勝烈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열린 대회는 50여명의 참가자들이 1회(20회 A조), 20회이후(B조)로 나뉘어 추첨을 통해 A B 조를 한팀으로 묶어 복식 개인전에 걸쳐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醫大 친선 테니스大會

甲·乙組 나눠 50여동문 熱戰

경기 결과 甲조에서는 김진영·고영조동문조가 乙조에서는 이갑순·정재영조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정기총회후에는 추첨에서 다과를 겸한 파티가 열렸다.



◇ 文동문

기의 노후화로 인해 회원관인등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던중 本會의 열조요청에 文동문이 흔쾌히 호응가 증반게된 것이다.

民自黨 大동령후보 金泳三 동문 선출

22 동문이 각각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 沈相鶴(교육 20) △준우승 鄭範謨(교육 2) △3위 閔丙峻(교육 4) △4위 丁俊赫(교육 5) △5위 嚴在厚(교육 4) △6위 李貞子(교행 1) △7위 李貞子(교행 1)

코리아 文大源사장 제록스 本會에 복사기 기증

본會에 복사기 기증

코리아제록스 社長 文大源(75년 商大卒)동문은 지난 5월 本會 사무처에 업무용 복사기 1대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받은 복사기는 XEROX 3963 기종으로 그간 동창회사무처가 사용해 오던 복사

6개월동안의 긴 여름과 가을 겨울이 온통 대통령선거로 뒤덮인때 國內經濟와國際收支、民生問題、治安問題등이 어떻게 될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政局의 경색을 막기위하여 識者들은 대통령후보자의선거후전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金泳三후보는 타후보에 대하여 당분간 休選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金大中후보는 후보경선을早期에 실시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을 길게 한 사실이 너무나고 책임을 전가

수 「安定술」

속지 말고

책의 많은 폐단을 드러내지
나 앓을까 두렵다. 양후보는
70년부터 40代旗手論에서다



만 하다면 막대한 선거자금을 동원하여 국민을 현혹시켜 정권을 잡으려는 도가니 속으로

空約 속지 말고 국가將來에 投票해야

5~6명이 경합한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30%대이며 물었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 3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결과 與小野大의 정국을 맞아 허우적거렸던 것을 상기할 때 차기 대통령 후보란 수에 훨씬 미달하는 국민지지로 醜態와 같은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이를 위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은 最短化하여야 하겠다. 지루한 선거전보다는 집약적인 단기간의 선거운동이 바람직하여 더 적합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니.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통령선거제도 하루 빨리 개정하여야 하겠다. 대衆演說方式을 지양하고 合同遊說方式을 지향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합동유세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TV합동유세회는 물론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주고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인대 民自黨후보가 이를 어느만큼 흡수하고 개인표를 얻다지는가가 당선의 갈림길에 있을 것이다. 民主黨후보의 정우에는 지역당성적을 탈피하고 正直・誠實한 國家經營者로서의 변신을 이루할 수 있는가가 당선의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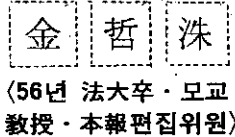
대통령선거비용의 과다사용은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실적인 정당의비용을 소진 후보를 고의 상의비용을 소진 후보를 고의 발하여 當選無效시키는 극한 처벌까지도 써야 할 것이다.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조사하여 고발하고 적어도 선거비용을 이기는 법법자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현안 公約이나 實業工作에 속지 말고 우리나라의 장래가 민주주의가, 統一이 달성되고 안되고가 우리의 선거권 행사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국민들은 투표로써 정권인의 장래를 심판하는 임과 의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아만 정치인이 국민을主權者로 모시게 될 것이다. 이번 투표에 국민과 국가의 장래가 걸려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지난번의 民自黨경선과 같은 票을 범하지 말고 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겠다. 국민들은 TV앞에서의 하절선辯이나 公選을 선호할 것이다. T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T에 나타나지는 후보의 道德性・全人格性이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며 美辭麗句나 空理空論이 투표자를 사로잡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6개월간의 대통령선거에서 우선 막아야 할 것은 선거비용의 과다이다.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나머지善心行政이나行하고空約이나남발하고起工式이나올리는 것에 국민들은食傷해하고있다. 13代국회의원선거때의空約이 14代국회의원선거에서 되풀이된 것처럼 5년전시의 대통령선거때의空約의再湯되어서는 안되겠다. 「재정부는「自主統一」「財閥解體」「學國內閣」「世代交替體」의 구호가 살아숨쉬게 하기 위하여서는國家統治權者로서의 責任을 지니를 보다



新素材 폴리렌 量産 성공

9당 3천만원...로켓연료 등 이용

「꿈의 新素材」로 불리우며 21세기 재료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C₆의 量産法이

밝혀져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기 시작했다. 그 구조는 탄소원자 60개가 배열·결합된 최초의 완전球形化合物로, 20개의 6각형과 12개의 5각형이 마치 축구공처럼 연결된 정32면체이다.

C₆은 90년 미국에서 처음 제조된 후 超電導 현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화학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베타리온화제를 비롯, 초전도, 고분자, 촉매, 컴퓨터 기억소자, 로켓연료, 무공속유기물자석 등에 널리 응용될 것으로

蘇憲永·趙陽九 동문 세계 최초로



◇ 꿈의 新素材를 개발한 趙陽九(왼쪽)·蘇憲永 동문이 잠깐 자리를 함께 했다.

로 보인다. 그런데 C₆은 그 가격 이 8당 3천만원이나 할 정도로 너무 비싸

그 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 두 동문의 폴러렌 量産 성공으로 보다 低價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폴러렌은 파우더를 태우면 발생하며, 흑연 분말과 아르곤가스를 주입, 온도 98·9% 이상의 C₆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현재 시간당 10·5g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C₆의 특성과 이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시켜 신소재 혁명의 물결에 우리 동문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新藥 아스피라톤 創出

말초혈관 순환장애 改善 큰 效果



◇ 韓敎壽

구소교수). 아스피라톤은 해열·진통·소염제로서 과거 백여년간 전체인류의 상비약으로 애용되어 최대판매고를 유지해 왔다. 근년에 와서 아스피린의 부작용, 심장질환 유발, 마그네슘 결핍, 신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방비하고 노화를 억제할

지난 6일 열린 제1회 신약개발연구발표회에서 AFRS(아스피라톤)라는 신물질개발 발표로 관심을 모은 韓秉勳(56년 藥大 卒·母校친임들과 화한 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아스피린을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은 소량씩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복용하면

많은 사람의 경우 위궤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러한 아스피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韓秉勳은 인삼에서 추출한 抗酸化 활성유효 성분인 말론(Malonic acid)과 살리실산(Salicylic acid)을 결합한 신물질 AFRS를 창출한 것이다. 지금까지 쥐를 이용해 AFRS를 실험한 결과, 혈소판응집으로 인한 말초혈관순환장애를 해소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었으며, 위궤양 유발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차 AFRS는 임상시험을 거쳐 제궤 화될 경우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에게 심인병 예방의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科學혁명 불 당긴다

人工衛星 개발에 우리同門 대거 參與

고도情報化시대를 맞아 국내 실현키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위성개발사업에 우리 同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한국통신 위성사업단장으로 부임한 위성 사업에



◇ 宋永國 사업단장



◇ 李奎鎭 2실장



◇ 金明錫 3실장

킷셋 A號 을 여름 발사 通信用 무공화號 95년에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提高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본격적으로 우주에 도전하는 인공위성 개발의 대

· 발사보형(1천원), 지상통신장비 연구·개발과 기술전수(1천원) 등 총 3천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95년 발사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해외에서

리하고 있다. 사령탑적인 단장 皇甫성연(54년 工大 卒)은 54년 工大 卒에서 올 여름 발사될 예정인데, 그의 주체 역시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을 눈여겨

직접으로 증대된다고 볼 때,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앞선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방송·통신 위성사업의 추진이 필연적임이 부각되고 있다. 위성사업 추진의 공적적인 목적이 바로 관련산업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터. 그후 90년 韓國通信이 주무부서로 선정되면서 그해 7월 위성사업단이 발족한 것이다. 통신·방송용 인공위성 2개(1천원), 발사체

2천년대 세계 우주사업시장은 규모를 최소 1천억 달러 규모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한 지분을 향유할 수 있는지가 바로 서울대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초의 한국국적 인공위성이 될 「킷셋-A호」(과학실험용)가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인공위성연구센터(소장 崔順達·54년 工大 卒)에서 올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모교출신 두 동문의 의해 개발됐다. 韓國표준과학연구원의 蘇憲永(74년 師大 卒·무기분석연구실장), 趙陽九(76년 工大 卒·구조해석연구실 책임연구원) 박사가 이번 개개의 주인공. 일명 「폴러렌」이라고 불리는 C₆은 85년 미국의 스몰리교수에 의해 그 구조가 처음

은 물론, 인간이 공유해야 할 정보 또한 양적·

과 학기 10년이 지나면

在野명사로 外柔內剛

在野출신으로서는 드물게 부근(附近)이 미지에 포용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위유 내강형. 당내 민주화와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80년대 말 全民聯 초대 의장을 맡아 재야활동의 정점에 섰으나 급진론



李富榮
[民主최고위원
69년 文理大卒]

자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91년 舊민주당에 입당했다.
69년 文理大 정치학과卒. 東亞日報기자 舊민주당 부총재.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국민당 創黨의 주역

62년 法大卒. 15회 高試 사법과 합격후 大邱地法판사를 역임하고 74년 辯護士 개업주로人權분야에서 활약하다 88년 民主黨 후보로 釜山中區에서 13代 국회에 등원했다. 특히 5共 청문회 때 진가를 발휘



金光一
[國民최고위원
62년 法大卒]

해결은 인간을 신어주었다.
國民黨이 창당하면서 선명정치를 표방하며 산파역을 자임했다. 민주당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50년 師大」
金鍾泌

우리近·現代史 研究의 주인공



陸士8기로 舊公明黨 창당의 주역을 맡으면서 정계에 투신. 6대 때부터 14대까지 7選. 공明黨 총재, 국무총리, 韓日의원연맹회장 등 정계의 최고봉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엮어온 주인공. 87년에는 대통령후보로 大選에 출마하기도. 사회적으로는 5·16민족상 총재, 민족중흥동지회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46년 師大입학으로母校와 인연을 맺어 특히 同窓會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편집국장 시절 舊新民黨에서 영입전국최다득표로 화려하게 10代 국회에入門한 3選의원.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입변의 소유자로 각종 세미나와 TV 정치토론회의 단골손님. 금대표와는 충



趙世衡
[民主최고위원
54년 文理大]

고도 서슴지 않는 소신파로 이번 최고위원 자유경선을 선창했다.
50년 文理大 특문과 입학 신민당 정책의장. 국회 교육청수석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先親인 鄭一후박사의 대를 이어 2대 政發研(한글)으로 지도부와 불원했으나 새정치 이미지로 부활을 얻었다. 美미주 리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 野團의



鄭大哲
[民主최고위원
67년 法大卒]

차기 大權후보로 꼽힌다. 平民黨정책의장, 국회헌법위원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모친 李允榮여사는 지난해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67년 모교 法大卒.

국민정 鼎沸 沸파도

새정치 이미지 선명

확대 動靜

3黨 동문黨職者 프로파일

組織的 팀플레이 탁월



李哲
[民主원내총무
88년 社會大卒]

民青學聯사건으로 한때 사형선고까지 받은 주인공. 85년 新黨들중에서 정계에入門한 이후 내리 3선, 조직적 팀플레이로 의정활동에도 남다른 수완이 있다는 평. 88년 社會大를 졸업했으며, 舊민주당 사무총장, 정치연수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金塔泰
[民自원내총무
58년 法大卒]

언론인출신의 4選으로 소탈한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議員들간에 신망이 두텁다. 13대 두차례 예결위원장을 맡는등 수차례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58년 法大를 졸업하고 朝鮮日報에 들어가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民正黨대변인·국회 재무위원장 경력을 지니고 있다.

豫算문제 등 수처에 밝아



黃寅性
[民自정책위의장
65년 行政大學院卒]

65년 行政大學院卒. 육사4기 출신으로 육군경리학교장 경리감등 육군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다 73년 全北지사에 발탁된 성실과목형. 11대 때 정계에 입문, 12대 전국구를 거쳐 이번 총선에서 호남역을 뚫은 唯二의 당선자. 아시아나항공회장을 역임했다.

湖南벽 뚫어 저력파시



韓光玉
[民主사무총장
60년 文理大卒]

「차세대지도자」로 지목되고 있는 韓총장은 60년 文理大 영문과를 졸업했다. 합리적이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것이 강점. 11·12·14대에 걸친 3選으로 民推協대변인, 平民黨총재비서실장, 국회노동위원장을 역임했으며 金大中대표의 신임이 두텁다.

당내 신임 두터운 合理派



金孝榮
[國民사무총장
52년 法大卒]

경희대 교수를 거쳐 충북·경북도지사, 9·10·12대 議員을 역임한 팔방미인형.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69세의 고령이나 黨內 유일한 4選의원이라는 점이 사무총장에 기용된 배경. 52년 法大卒.



尹榮卓
[國民정책위의장
60년 文理大卒]

국회외무위행정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 이번 14대 총선때 TK의 본거지인 대구에서 처음 지역구에 당선되는 특수를 발휘했다. 건설·재정분야의 전문가로 신중한 성격이나 일처리가 분명한다는 평. 60년 文理大卒.

黨內 유일한 4選의원

TK본거지서 當選돼

조세 금융 증권에 정통



張在植
[民主정책위의장
56년 法大卒]

경제능력보강을 위해 전국구 4번으로 영입한 실물경제통. 국세청차장과 주택은행장을 지내 경제실무, 특히 조세 금융 증권문제에 정통하다. 56년 法大를 졸업했으며 조세문제연구소장을 역임. 한국기원이사장으로 바독실력이 프로급으로 인정되고 있다

▲文相穆 (70년) 法大 卒 ≡ 5월 1일(주)진 로사장에서 同社와 美 쿠어스사가 합작설립하는 한국맥주사장에 선임됨.

▲玄在賢 (71년) 法大 卒 ≡ 동양그룹 회장·本會副會長 ≡ 최근 長

모교인 美스탠퍼드大 경영대학원에서 한국의 자본시장을 주제로 특별강연.

▲張麟(71년) 醫大 卒 ≡ 京信대소화기내과교수 ≡ 5월21일 美하버드大의대에서 연근근무율을 인정받아 미국소화기병화회의의 정회원으로서 선출됨.

▲郭贊浩 (71년) 新開大學院 卒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사무처장

국장 ≡ 최근 同會서울지역사무국장회 회장에 피선됨. 또 고려대동창회경제인회 감사에 선임됨.

▲李云才 (72년) 經緯大學院 卒 ≡ 부산대교수 ≡ 최근 협중앙회 청담동관장

장에서 竹橋지점장으로 전.

▲金恒 (76년) 大醫院 卒 ≡ 부산대교수 ≡ 자연사환경화학장교

서 4월11일 부산대에서 특별강연회 개최.

▲朴世勲 (78년) 醫大 卒 ≡ 박세우 피부과의원의원장 ≡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시에서 개최된 제12차 미국레이저학회에 참석하고 귀국.

▲朴忠學(78년) 醫大 卒 ≡ 최근 대한병원 산부인과과장

[illegible]

母校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illegible]

公演

■ 라자로동기회 자선음악회

-6월2일 예술의 전당

나환자를 돕기위해 매년 개최 해온 「그대 있음에」라는 명칭의 자선음악회로서 올해로 열번째를 맞는다. 金成吉(65년 音大卒)동문의 「바위고개」 朴世源(72년卒)이규도의 이중창「축배의 노래」 朴美惠(83년卒)의 「그리운 금강산」 등이 연주된다. 피아노 협연은 權景淳(73년卒)동문.

■ 金貞賢귀국바이올린독주회

-6월1일 세종소강당

84년 모교音大에 입학, 재학중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로 유학한 이후 잘츠부르크 국립음대 모짜르테움에서 MD를 취득한 金동문의 귀국 첫무대. 유은경(피아노) 송희송(첼로)동문의 협연으로 베토벤·피츠너·브람스·사라사테 등 바이올린의 명곡들로 꾸며졌다.

■ MUSICA SACRA합창단 정기공연

-6월15일 호암아트홀

중세 종교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해온 이들의 가톨릭음악원 건립을 위한 일곱번째 정기공연. 南榮喆(75년 音大卒)동문의 지휘

로 高明姬(79년卒)동문이 반주를 맡았다. 무반주곡인 「윌리엄버드의 미사곡」을 비롯, 바흐의 「천국 성부의 영광안에」 브루너 「아베 마리아」 등이 연주된다. 70여명으로 구성된 이팀의 명칭은 「성스러운음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朴榮洙(72년 音大卒)동문이 단장을 맡고 있다.



구재향



박승민



김연경



여은정

■ 丘在香피아노독주회

-6월16일 예술의전당

모교 졸업(84년)후 美新시내티대에서 D.M.A과정을 마친 丘동문은 지난해 귀국, 호남신학대에 출강하고 있다. 하이든, 베토벤, 바르톡, 슈만이 오른다.

■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공연

-6월30일 예술의전당

洪燕澤(53년 音大卒)동문이 음악감독을 맡고있는 이들의 56회 정기연주회. 특별히 美國의 날바

론이 지휘를 맡은 이번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朴勝敏(86년 音大卒)동문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 金炯敦피아노독주회

-6월18일 예술의전당

89년 모교 졸업후 현재 뉴욕주립대에서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金동문의 이번 무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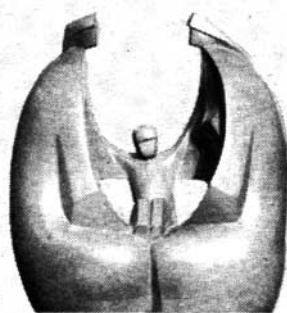
서는 바흐, 베토벤, 로호버그, 프로코피에프, 쇼팽, 리스트가 연주된다.

■ 呂恩延귀국바이올린독주회

-6월24일 예술의전당

모교 졸업(89년)후 美 맨하탄音大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呂동문의 이번 귀국무대에서는 비발디의 소나타를 비롯, 볼랑, 스트라빈스키, 지마노스키가 연주된다.

展示



가족·청동·67×55×30·1991

■ 李雲植(60년 美大卒·江原大교수)

이운식의 작품은 대체로 빛의 효과에 의해 더욱 그 섬세한 진가를 발하는데, 그가 쏟는 작업에 대한 노력과 작품의 주제에 대한 깊은 연구는 돌이라는 재료에 대한 폭넓은 탐구 덕분에 작품을 다이나믹한 형태로 완성케 한다.

新刊

■ 사람의 의미

-金重述著(59년 文理大卒·모교醫大교수)

(274쪽·4천원·서울대학교출판부판)

■ 연구계획과 평가

-朴天緒著(56년 農大卒·해남화화연구소)

(154쪽·3천원·한림저널사)

■ 리얼리즘의 시정신

-崔斗錫著(80년 師大卒·강릉대교수)

(349쪽·6천5백원·실천문화사)

■ 태양은 남으로 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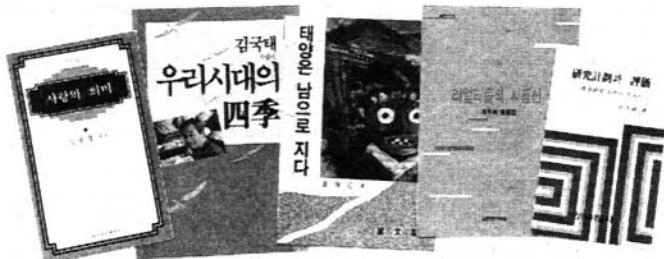
-金昇元著(55년 醫大卒·모교醫大교수)

(310쪽·5천원·려문각판)

■ 우리시대의四季

-金國泰著(63년 師大卒·추계예술대교수)

(316쪽·4천5백원·우석판)



法律文化창달공로 무궁화章 敘勳



金道昶

辯護士

[47년 法大卒
大學院同窓會長]

金道昶대학원동창회장이 지난 5월1일 법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理事長이기도한 金회장의 수훈공적은 학자로서의 후진양성과 法制전문가로서 법제도 쇄신정비에 기여한 공로. 40년동안 모교와 成大등에서 법학교수로 재직, 평생을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바친 金회장은 「行政法論」 「행정判例集」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펴낸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의 태두로 꼽힌다.

태평양經濟委 14代 국제회장 취임



具平壽

럭키金星商會會長

[51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本會 具平壽부회장(럭키金星상사 會長)이 태평양경제위원회(PBEC) 제14대 국제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次期총회를 93년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한국대표단위원장인 具부회장을 14대회장으로 선출했는데, 具부회장은 취임인사에서 「강화되고 있는 세계의 무역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경제계의 단합된 입장을 각국정부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탁월한 經營者로 「茶山경영상」수상



金善弘

起亞그룹會長

[55년 工大卒
本會 副會長]

평생을 자동차와 함께하고 자동차공업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本會 金善弘 부회장(起亞그룹회장)이 韓國經濟新聞이 올해 처음제정, 탁월한 經營자에게 수여하는 「茶山경영상」을 수상했다. 국내 경제5단체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엄선한 결과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확정된 金부회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자체제의 토대를 확립하고, 종업원지주제 도입으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구현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過密現象·문제점과 대책

母校冠岳캠퍼스의 시설부족과過密化현상이 대학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대 기획실의 자체조사와 '大學白書'의 자료에 따르면, 75년 관악캠퍼스의 총합과 시설·設備을 비교할 때 학생·教員·建築面積은 각각 2배 이상 증가된 반면, 施設敷地는 거의 증가되지 못함으로써 과밀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工大定員의 대폭적인 증가와 수련캠퍼스의 관악이전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부지 부족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工大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강화와 첨단과학 분야의 대외경쟁력향상을 이유로 민간기업과 정부부의 요구에 의해 정원이 3배 이상 증가된 93년에 2백40명 중 원신정(보통)이나 이에 필요한 교수인력이나施設投資는 물론, 이들 중가원인원을 수용할만한 연구·교육공간의 확보가 안고 있어 점차工大增員을 요구했던 정부측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정부는 대학시설의 적정한 수용능력에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서울대의 시설확충을 규제하고 있는 규제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적용은 물론 정부 스스로 관악캠퍼스에 이전한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등施設敷地の 마련에 적극적인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冠岳은 滿員...敷地難 심각

한편 農業生命科學大學의 경우도 학부의 성격이 과거와는 달리 전반적인 농업관련 학부의 추세가 生命工學 遺傳工學과 컴퓨터의 활용 등 각종 첨단분야와의 연계·교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어, 농생대의 학생들과 교직원 전체가 관악캠퍼스로의 移轉을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각각 과대학총합의 취지가 학부간의 연계를 꾀하고 학부의 균형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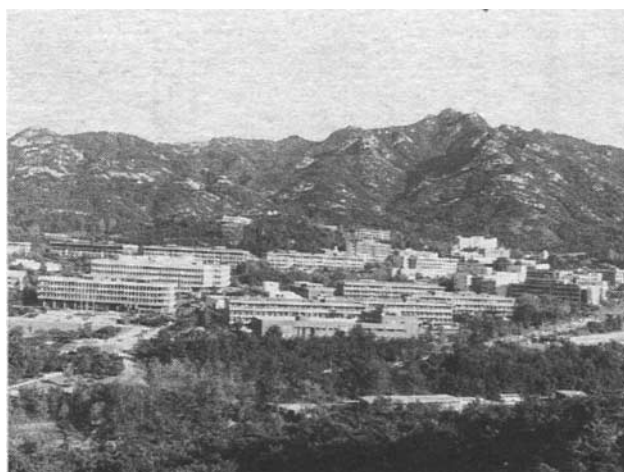
발달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수련캠퍼스에 있는 강의시간 50분의 10여분은 소수 과목에 강의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이러한 시설부족 현상은 단지工大와農

生大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육성정책에 의한 대학원생 증가(현재 8천명)와 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 또한 관악캠퍼스내의 각종 연구소의 증가나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파생적으로 필요하게 된 각종 공간,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공간의 어려움공간의 과밀화에 서 파생된 대학캠퍼스 본연의 인간적 정서적 기능의 파괴 등의 문제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75년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이루어질 당시에 관악캠퍼스는 50개棟의 건물이었었지만 현재는 1백27개棟으로 75년에 비하여 2배54%가 증가

75년 비해 學生數 2배 늘어

研究·實驗室 포화상태



◇ 過密로 포화상태에 이른 관악 캠퍼스 전경

安養 樹木園 규제 풀어 제2캠퍼스 造成 시급

관악캠퍼스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렇게 수용인원의 증가율이 다른 것에 비해 실형실의 수용력은飽和狀態에 이르러 각 대학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공대·화학과 실험실서점현 교수의 경우에는 교수 1인에 대

구소 및 공화연구소일대의 건폐율은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그 용도가 연구기능이라는 점과 관악캠퍼스가 산악지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건폐율이 매우 높을 뿐이다. 이러한 과밀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악캠퍼스내에 餘分의 부지가不在함으로써 외부에서 기증하는 연구소건물과 기타 시설물및 학생·교

학원생 16명이 92.4㎡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설치기준령에 제시된 145.8㎡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관악캠퍼스 전체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농생대의 건폐율 20%조차 전용지역의 건폐율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출면적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례로 관악캠퍼스의 반도체공동면

수준원 등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신규시설을 현관관캠퍼스가 수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시설과 부지가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와 연구소의 증가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연구소의 신설은 사실 새로운 첨단분야에서의 도입이나 보다 본격적인 학문의 출현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부지부족의 문제로 연구소의

면적이 실험·연구의 공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여부의 공간은 애초에 이나 생활·문화·환경·장치·마지막으로 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레크리에이션 공간에 폐기상태에 가까운 빌딩, 책상, 개인이 준비한 스토브와 선풍기까지 마구 뒤섞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공간부족은 근본적으로

대학캠퍼스의 시설부족 현상에서 파생된 문제로, 이에 대응하여 연구·실험·교육·생활·문화·환경·장치의 확충을 위한 각종 교육·연구·사회봉사 기능을 감당할 때 모교의 캠퍼스 확장은 정부의 투자사업 증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식

연구처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모교 교수들이 내놓은 연구업적을 한데 묶은 「연구업적」을 발간했다.

각 인물이 관에서 한 바 있다.

히 최근 동아일보에서 모
교가 일본어를 한시적으
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중
이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
해, 절대로 없었던 일임
을 확인하고, '이같은 사실
무르한 보도가 오히려 고

「限時的 포함」日刊紙報道 사실무근

모교의 94년도 임시안
발표후 사회 각계에서 일
본어 불포함에 대한 반론
과 학회가 계속되는 반면
모교는 본래의 입장을 고
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
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일본어고교교사모
임, 전국 국·공립일본고
교장회, 전국 사립중·고
교교장회등 일선 고교관
계자들은 「고교교육의 혼
란이 초래된다」며 임시안
의 재고를 촉구했고, 상공

부에서선 장관 명의로 공물을 보내「서울대의 조처」는 일본인교육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계획 및 전 문가 교류 확대 분위기에 부응하는 조성에 의해 배치되는

이에 대해서 白忠鉉교무처장은 “임시과목으로서의 일본어 평가와 결정은 연구위원회의 검토와 의사를 실과는 다른 가사를 발표해 둘의 일으키기도 했다.

일대변화를 일으켰다.
「바코드」를 이용한 도서 대출 전산망이란 도서관의 출입과 도서대출을 온 라인 컴퓨터 시스템에 묶은 것. 학생들은 학기 초에 발급받은 개인 고유 바코

理工系 학부는 2백40명 늘려

내년도 대학원생 증원 폭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교무처는 지난 4년간 평균과사 과정 86·5명, 박사과사 30·8명 수준으로 증원해오던 대학원생수를 내년도 인시요강에서는 각각 42명, 19명으로 축소 조정해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부 신입생의 경우나 자연대 20명, 공대 2백20명 등 총 2백40명이 증원된다. 교무부처장李泰秀교수는 (화)는 이에 대해 "교초(학단과 대학에서는 석사·단과대학에서는 석사·7백21명, 박사 3백55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교수인원과 시설의 한계가 증원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증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出版部 圖書部 할인혜택

서울대학교 출판부장은 서울대학교 출판부장을
車培根교수(전 동문들을
대상으로) '북클럽'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
하는 동문들에게는 도서
목록 송부, 도서특별 할인,
새해수침정성, 연하카드할
인 등 혜택과 함께 신간에
대한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출판부는 각
종 학술도서의 출판율을
해고수와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지원하던 모교부
속기관으로 지난 1996
1년에 설립돼 연간 5백
80여종의 수준 높은 학술
도서를 발간해 왔다.

◎회원가입문의: 전 화
88914424

93학년도부터 폐지
看護大 수업료 면제
어섯다고 말했다.

1억5천만원 추가 出捐



◇朴 회 장

모교 發展基金



◇朴 회 장

동창회 副會長인 朴慶容(호그름)회장은 모교 규장각 소장자료의 정리

및 영인본간행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1일 1억5천만원의 추가 출연했다. 차회집연은 8월 2일, 91년 10월 3천만원의 출연한다. 이어 규장각 소장기금은 3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모교는 이 기금의 수익금으로 규장각자료중서

금호시리즈를 발간하게 된다.

團體集連 줄이어

모교 발전기금에 직장 재직 동무들의 단체출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중에 들이온 단체출연을 보면 한광노 동연구원 재직동무 13명 이 성립한 모아 5월8일

의명의
篤志家

2천만원 선뜻

이 기금의 출연자의 회
후원자가 지난 5월 1일
趙完奎교육부장관을 통해
조모교 발전기금으로 2
천만원을 출연했다.

김영호 명명도 그 수혜
금으로 93학년도 1학기
부터 대학원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만간 5천800(5백
여만원 상당)을 모교에 기
부했다. 농성대학장은 지
난 5월 9일 강민석씨에
게 총장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만석씨 土地기부

전날 구령교 토지만나 동리에 사는 장만석씨가 모교 農生大 부속 남부원 슬림과 학생수련장에 인접한 토지 5천82㎡(5백여만 원 상당)을 모교에 기부했다. 농생대와 장씨의 지난 5월9일 장만석씨에게 충장영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서관 電算網 완성

변하기 초, 도서대출잔
금도 1천여 원이 넘었다.
대출 전잔금이란, 도서관
의 출입과 도서대출을
한 일대 변형을 의미했다.
『파코』를 이용한 도서
대출 전잔금이란, 도서관
의 출입과 도서대출을
한 일대 변형을 의미했다.
『파코』를 이용한 도서
대출 전잔금이란, 도서관
의 출입과 도서대출을
한 일대 변형을 의미했다.